

HEADLINE NEWS

지역 대학과 식료품 체인점의 일자리 창출 합동 프로그램에 州政府 예산 지원 (휴스턴)

미국 텍사스 州 정부가 250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위해 휴스턴 커뮤니티 대학시스템에 5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 프로그램은 휴스턴 커뮤니티 대학시스템과 H-E-B라는 한 대형 슈퍼마켓 체인점의 직업훈련 파트너십에 의해 제안되었다. H-E-B는 고객서비스, 축산, 원예, 식료품 부문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휴스턴 커뮤니티 대학시스템은 제과, 고객서비스, 트럭 운전 등을 위한 직업훈련을 맡는다는 계획이다.

텍사스 州의회는 직업훈련을 위해 2002년에는 600만 달러 지원을 승인했고, 2003년에는 평균 시급 9달러 42센트 수준의 일자리 8,955개를 만들거나 유지하기 위한 15개 프로그램에 650만 달러 이상을 지원한 바 있다. H-E-B는 현재 직원 6만 명과 텍사스 州에 300개, 멕시코에 20개의 점포를 갖고 있고, 휴스턴 커뮤니티 대학 시스템은 휴스턴과 주변지역에 있는 5개 대학으로 구성되어 있다.

(Houston Business Journal, 2005. 3)

HIGHLIGHTS

도시관리

- ① 공원 디자인과 반사회적 행동의 관계 분석 (영국)
- ② 대도시권 내부교외지역 재활성화법안 제안 (미국)

도시환경

- ③ 도시 고압송전선과 어린이 백혈병의 관련성 연구 영국

도시교통

- ④ 시장 주도하에 보행자 안전 10대 프로젝트 실시 (시애틀)
- ⑤ 상습적인 주차위반벌금 체납자 단속을 위한 첨단장비 도입 추진 (디트로이트)
- ⑥ 지하철 개통 이래 처음으로 지하철 시설물의 안전도 검사 실시 (북경)
- ⑦ 차량 통행거리에 비례한 교통혼잡세 부과 방안 검토 (영국)
- ⑧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인프라 구축 계획 (몬트리올)

사회복지문화

- ⑨ '예술가를 위한 공간과 주택 엑스포' 개최 (시카고)
- ⑩ 노숙자에게 시력보호 프로그램 제공 (오스틴)
- ⑪ 미국에서 가장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도시 선정 (미국)

행재정

- ⑫ 장기간 보관중인 유실물을 인터넷 경매로 판매하여 수익 증진 (토론토)
- ⑬ 가나가와 縣과 기업유치지원제도 병용을 위한 조례 개정 (요코하마)

① 공원 디자인과 반사회적 행동의 관계 분석 (영국)

영국의 CABE(The Commission for Architecture and the Built Environment)는 오픈스페이스 디자인 지침서에 따라 디자인과 유지·관리를 잘 한 오픈스페이스에서는 반사회적인 행동 발생이 줄어든다고 발표했다. 또한, 문제가 있는 오픈스페이스가 다시 디자인되고 잘 보존되었을 때 범죄율이 떨어졌다고 CABE는 말했다. 반면에 비용이 많이 드는 감시카메라는 공원에서의 반사회적인 행동 감소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연구는 영국 전역의 녹지 오픈스페이스 30개를 대상으로, 오픈스페이스 관리담당자 및 지역주민과의 인터뷰와 성공적인 오픈스페이스 사례 9개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Planning, 2005. 5. 27, “Decent Parks? Decent Behaviour”)

② 대도시권 내부교외지역 재활성화법안 제안 (미국)

미국 뉴욕주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상원의원은 미국계획가협회(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컨퍼런스에서 내부교외지역의 재건을 위한 SCORE(Suburban Core Opportunity, Restoration and Enhancement) 법안을 제안하였다. 내부교외지역이란 2차대전 이후 대량으로 급조된 교외 주택단지를 말하는데, 주거환경과 인프라시설이 오래되었고 인구 감소와 빈곤층 증가 등 근린쇠퇴를 경험하고 있는 지역이다. 또한, 내부교외지역은 중심도시의 재활성화 우선정책에 밀려 그동안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지원에서 소외되어 온 지역이다. SCORE 법안에 따르면, 2억 5천만 달러에 이르는 연방정부 예산을 별도로 조성하여 내부교외 지역 커뮤니티 재활성화 사업에 투자하게 된다.

(www.smartgrowth.org/news/article.asp?art=4740&State=52)

도시 환경/도시 교통

■ 세계도시동향 ■

③ 도시 고압송전선과 어린이 백혈병의 관련성 연구 (영국)

영국 옥스포드 대학의 과학자들은 고압송전선이 이것에 노출된 주거지역에 사는 어린이의 백혈병 유발과 관계가 있다고 영국 의료 학술지인 British Medical Journal을 통해 주장했다. 이들 과학자들은 고압송전선이 지나가는 200m 반경에서 태어난 어린이는 600m 떨어진 곳에서 태어난 어린이에 비해 70%의 백혈병 유발 위험이 더 있다고 밝혔다. 이 연구는 1962년과 1995년 사이 잉글랜드와 웨일즈에 사는 29,000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했으며, 이중 9,700명은 백혈병 어린이였다. 이 연구결과가 명확한 과학적인 인과관계를 설명하지 못하고는 있지만, 연간 400건의 어린이 백혈병 발병 중 5건은 고압송전선과 관련이 있다고 과학자들은 주장했다. 또한 도시계획시 고압송전선에서 거리를 두고 주거지역과 학교를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Planning, 2005. 6. 10)

④ 시장 주도하에 보행자 안전 10대 프로젝트 실시 (시애틀)

미국의 시애틀市에서는 최근 시장(市長)의 적극적인 주도하에 보행자 안전을 위한 10대 안전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시애틀에서만 매년 400건 이상 발생하는 보행자 관련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이번 프로젝트는 市경찰 당국과 TV 및 라디오 방송매체의 협조아래 진행될 예정이다. 이 프로젝트에는 보행자 안전을 강조하는 대(對)시민 홍보 방송 실시, 보행자 안전 표지판 설치 증대, 학교주변 통학로 정비,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운전자 단속 강화, 주요 교차로의 각종 노면표시 재정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동안 시애틀市는 보행자 친화적인 도시로 평가되어 왔으며, 市당국은 이러한 위상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왔다.

(www.cityofseattle.net/news/detail.asp?ID=5213&Dept=40)

5 상습적인 주차위반벌금 체납자 단속을 위한 첨단장비 도입 추진 (디트로이트)

미국 디트로이트市 당국은 최근 상습적인 주차위반벌금 체납자 단속을 위한 첨단장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에는 주차위반 단속시 공무원이 직접 차량 번호를 입력해야 했기 때문에 하루에 겨우 100대의 차량에 대한 주차위반 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이 장비를 이용할 경우 시간당 1,000대의 차량 번호 인식이 가능하여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6회 이상의 주차위반벌금 체납 기록이 있으면 상습 주차위반 차량으로 분류되는 디트로이트에서는 현재 약 4만 대의 차량이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나 그동안 강력한 제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 첨단장치가 장착된 차량의 대당 가격은 7만 5천 달러에서 10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市당국은 예산승인이 나는 대로 이 첨단장치 구입을 위해 관련 업체와 계약 체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www.freep.com/news/locway/parking18e_20050518.htm)

6 지하철 개통 이래 처음으로 지하철 시설물의 안전도 검사 실시 (북경)

중국 북경市 교통당국은 지하철 개통 이래 처음으로 지하철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도를 평가하여 결과를 발표하였다. 지하철 1, 2호선을 대상으로 한 이번 평가에서 전체적으로는 합격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차량연수가 40년 가까이 된 차량 비율이 42%에 이르는 등 차량 노후화로 인한 문제 발생이 우려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북경市 당국은 최근 지하철 시설에 대해 적극적인 투자를 해왔으며, 일례로 2003년 이래로 지하철 안전시설 및 통신시설 개선사업을 위해 43억 위안(5억 1,800만 달러)을 지출했다.

(english.people.com.cn/200505/27/eng20050527_187065.html)

7 차량 통행거리에 비례한 교통혼잡세 부과 방안 검토 (영국)

영국 교통 당국은 차량 통행거리에 비례한 교통혼잡세 부과 방안 시행을 향후 5년에 걸쳐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최근 밝혔다. 차량 통행거리 비례 혼잡세는 GPS와 같은 차량위치 추적장치 설치를 통해 통행 도로구간, 시간대 등을 고려한 차별적인 혼잡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의 추진은 최근의 설문조사에서 16%의 운전자만이 차량위치 추적장치 설치에 반대함에 따라 더욱 탄력을 받게 되었다. 최근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전국적인 통행거리 비례 혼잡세 부과 방안을 시행할 경우 4%의 차량 이용 감소를 통해 40%의 교통혼잡 완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관계자는 이 혼잡세가 기존의 휘발유세와 교통세를 대체하는 새로운 세금 부과 방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www.guardian.co.uk/transport/Story/0,2763,1502694,00.html)

8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인프라 구축 계획 (몬트리올)

캐나다 몬트리올시는 도심부 중심도로인 de Maisonneuve Boulevard에 5백만 달러를 들여서 자전거 인프라를 새로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자전거도로의 일부 구간에서는 200~400대의 도로변 주차공간을 없앨 방침이다. 또한 도로변 주차공간과 자동차운행도로 사이에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에서는 주차된 차가 문을 열어도 자전거 이용자가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차선폭도 조정할 계획이다. 시는 장기적으로 시내 곳곳에 단절된 자전거 전용도로의 연결을 위해 약 20km의 자전거도로를 추가로 건설할 예정이다.

(www.canada.com/montreal/montrealgazette/news/montreal/story.html?id=f1999dd4-98da-4601-9002-5ca10dffcbd3)

9 '예술가를 위한 공간과 주택 엑스포' 개최 (시카고)

미국 시카고市 문화과와 주택과가 공동으로 후원하는 '예술가를 위한 공간과 주택 엑스포(Chicago Artists Space & Housing Expo)'가 2005년 4월 개최되었다. 80여 개에 달하는 관련 업체들이 참가한 이 엑스포에서는 예술가 또는 예술단체들에게 필요한 작업공간과 주거공간을 다루는 세미나가 열렸고, 주택소유권, 저렴한 주택, 작업장 안전, 부동산 투자, 건강보험, 관련 법령 등 예술가들에게 필요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했다. 특히 세금체납 부동산을 구입하는 방법과 환경친화적 설계, 예술가를 위한 도시공간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리도 마련되었다. 참가업체와 세미나 발표자들은 예술관련 서비스 단체, 주택관련 정부 기관, 주택상담 단체, 주요 은행과 대출기관, 개발업자, 예술 공간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공인중개인들로 구성되었다.

(egov.cityofchicago.org/city/webportal/home.do)

10 노숙자에게 시력보호 프로그램 제공 (오스틴)

미국 텍사스州 하원의원들은 연방정부에서 재정을 지원하는 '노숙자를 위한 건강관리(HCH: Health Care for the Homeless) 사업'의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그 일환으로 노숙자에게 시력관리서비스와 안경을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오스틴市는 시력검사장비를 구입했고, 자원봉사 검안사들이 2005년 5월부터 매주 2회씩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시력검사를 하고 있다. 노숙자를 위한 시력보호 프로그램은 HCH 사업과 10여 명의 검안사들의 협조로 시작되었다. 현재 많은 노숙자들이 겪고 있는 시력 문제는 노숙자 상태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동안 시력이 나쁜 노숙자들은 시력검사를 받거나 안경을 살 수 없었다. 이에 따라 혈당검사 장비들을 읽을 수 없었고, 직업교육을 받거나 일자리를 찾기 힘든 상황이었다.

(ci.austin.tx.us/news/2005/homeless_healthcare.htm)

미국에서 가장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도시 선정 (미국)

미국 복합비타민 제조업체 센트럼(Centrum)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 도시들이 다른 도시에 비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도시로 나타났으며, 그 중 산호세와 샌프란시스코가 각각 1위와 3위를 차지했다. 미국 50개 대도시를 대상으로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종합 평가한 이 연구는, 스트레스 지수와 수면문제 등 정신적인 건강상태를 대표하는 9개 변수, 출퇴근시간과 휴가일수 등 시민들의 라이프스타일을 대변하는 13개 변수, 운동량과 레크리에이션 참여율 등 육체적인 건강을 나타내는 7개 변수, 당뇨병과 만성병 등 질병을 대표할 수 있는 9개 변수, 영양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5개 변수를 가지고 평가하였다. 50개 도시의 순위와 각 변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www.bestplaces.net/docs/studies/healthy.aspx)

장기간 보관중인 유실물을 인터넷 경매로 판매하여 수익 증진 (토론토)

캐나다 토론토시의 대중교통을 관리하는 토론토 대중교통위원회(TTC: Toronto Transit Commission)는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 내에서 발견된 유실물 중 신고 접수된 후 3개월 동안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인터넷 경매를 통해 수익을 증진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관계 당국은 연간 44,000여건의 유실물이 접수되고 있으며, 찾아가지 않는 유실물을 인터넷으로 경매할 경우 판매 실적이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TTC는 1988년부터 장기간 보관 중인 유실물을 판매해 연간 23,000달러의 수익을 올려왔다.

(www.newswire.ca/en/releases/archive/March2005/18/c6071.html)

가나가와현과 기업유치지원제도 병용을 위한 조례 개정 (요코하마)

일본 요코하마시는 케이인(京浜) 임해부와 미나토미라이21 지구에 진출하는 기업에 투자액의 10%(최대 50억 엔)를 지원하는 '기업유치촉진조례'를 개정하여 가나가와현의 유치지원제도와 병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병용 시에 요코하마시가 지원하는 금액을 줄이는 대신 시 소재의 타 기업도 조례적용대상에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개정안은 2005년 4월에 시행되었다.

현과 병용할 시의 지원금액은 연구비가 투자액의 13.5%(최대 72억 엔), 공장정비와 본사이전은 9%(45억 엔)가 된다. 그 결과 연구소를 신설하는 기업에는 시와 현이 합계한 투자액이 16.5%(최대 87억 엔)가 되며, 공장신설 등은 12%(최대 60억 엔)가 된다. 케이인(京浜) 임해부에 신설할 신일본석유정제와 미나토미라이21 지구에 본사를 이전할 닛산자동차가 현과 시의 지원금을 병용할 전망이다.

이에 앞서, 가나가와현(神奈川縣)은 2004년 12월부터 시작한 기업유치책의 일환으로 향후 행동계획과 2005년도 목표를 수립한 바 있다. 행동계획의 목표는 2005년 중에 투자의욕이 있는 200여개 기업을 방문하여 현으로의 투자 유치를 권유하고 1개 기업당 최대 80억 엔 규모의 지원제도를 대기업, 중소기업 각각 10개사가 활용토록 하는 것이다.

(www.nikkei.co.jp/news/retto/20050519c3b1904k19.html),

(www.nikkei.co.jp/news/retto/20050202c3b0204b02.html)